

석유화학제품 가격상승 “주식 매수”

대신경제연구소, 계절적 성수기 진입 ... LG-호남-한화 <매수> 의견

대신경제연구소는 9월2일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석유화학업종에 대해 주식투자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대신경제연구소 안상희 연구원은 “국제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4주 연속 강보합 내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일본 소재 ExxonMobile 정제시설 정제 플랜트 가동중단 등 일부 석유화학기업의 공장 트러블로 인한 효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8월 말 이후 석유화학제품의 계절적인 성수기 진입에 따른 구매기업들의 수요 회복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최근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주가가 일시 조정을 받고 있다며 현재의 조정국면을 매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LG화학, LG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그리고 한화석유화학에 대해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LG화학의 주력제품인 PVC 가격은 8월 말 톤당 613달러, ABS 가격도 960달러로 소폭 상승했으며, 호남석유화학의 주력품목인 EG(Ethylene Glycol) 가격은 톤당 695달러를 기록했다.

LDPE 가격은 2주 연속 보합권을 형성하고 있어 본격적인 가격상승이 지연되고 있으며, 에틸렌과 벤젠 역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03>